

80년 이후 세대는 5·18을 어떻게 기억하나

오늘 5·18기록관 광주정신포럼 10~30대 청년들 경험·활동 토론 젊은 세대에 다가갈 방향 모색

“영화와 소설에서 다루지는 잔혹한 이미지와 ‘10일간의 투쟁’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일궈낸 믿기 어려운 질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80년 5월을 겪어보지 못한 현재의 광주 청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때론 무서우면서도 어둡고 어려운 역사이기도 하다.

청년들은 충을 들었던 시민군의 이야기보다 주먹밥을 만들고 일상을 지켰던 여성들, 항쟁의 이야기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살았는지 더 주목하고 있다고

싶어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겪어보지 못한 광주 지역 10~30대 청년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5·18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18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미래세대가 5월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주제로 ‘제3차 광주정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8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청년들이 5·18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간접적 경험과 활동,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다.

단순히 청년들이 말하는 5·18의 가치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40주년 이후 5·18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기록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사회단

체 ‘광주로’ 김꽃비 이사의 사회로, 4명의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자 5·18과 관련해 추진 중인 활동과 생각을 나눈다.

이날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청년층과 타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싶었다는 김소진씨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오월 식탁’ 동영상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요리를 주제로 할머니를 만나 그날에 대한 기억을 사전 인터뷰한 뒤, 할머니가 알려준 요리법을 토대로 직접 요리를 만든다. 이후 5·18을 직접 경험한 게스트를 초청해 음식을 나눠먹으며 자신이 궁극했던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중이다.

김씨는 발표를 통해 5·18 당시 잔혹함과 폭력성에 주목하기보다 ‘떡방’과 ‘죽방’에 익숙한 젊은이에게 그녀의 광주에서도 식

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등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또래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발표하는 박은현씨는 오르골에 5월을 담은 문화기획자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늘 무겁게만 느껴졌던 5·18의 역사를 젊은이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록관 관계자는 “40주년 이후에도 5·18 정신을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무거운 역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포럼은 5·18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공비축미 수매 시작 2019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된 18일, 광주 북광주농협 우치지점에서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검사원들이 미국의 등급판정을 기록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방법용 CCTV·안심벨...

광주 양림동에 ‘안심 골목길’

남구 내내 2월까지 조성

광주시 남구가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방법용 CCTV를 비롯해 LED 보안등 정비 및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광주시 남구 양림 오거리 주변과 정음성로, 오기원길, 백서로, 천변좌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위 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남구는 지역 14곳에 방법용 CCTV와 범죄 발생 시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벨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낡은 보안등 96개를 LED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8개 지역에 LED 보안등을 새롭게 설치해 골목길을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앞서 남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각종 시설이 들어설 위치를 선정했으며, 노후 보안등을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ED 보안등 정비 사업도 추가 추진키로 결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림동 안심타운 모델이 대한민국 안전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0 달뜨기 23:38
해질 17:25 달지기 12:58

첫눈?

서해안과 일부내륙지역에 비도는 눈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또는 눈	5/9	보성	구름많음	3/9
목포	가끔흐리고비	6/9	순천	구름많음	7/10
여수	구름많음	7/9	영광	비또는 눈	4/8
나주	비또는 눈	5/10	진도	구름많음	6/11
완도	구름많음	7/10	전주	구름많음	4/8
구례	구름많음	4/9	군산	구름많음	3/9
강진	구름많음	6/10	남원	구름많음	3/8
해남	구름많음	5/10	흑산도	구름많음	7/10
장성	비또는 눈	4/1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5~3.0	북서~북	1.0~3.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낮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35	06:24
---	19:17	
여수	07:08	00:56
	20:22	14:00

◇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	☀	☁	☁	☁	☁	☁
2/11	2/15	6/16	10/21	11/19	7/14	7/14

전남대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 수사 의뢰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한 단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백보’를 지켰던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광주북부경찰에 전남대 인문대 쪽문 등에 붙여진 홍콩 시위 지지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전남대 중국인 유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이들은 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 간 마찰이 빚어졌을 때 현장에 있던 교직원에게도 책임을 지켰던 시민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광주북부경찰에 전남대 인문대 쪽문 등에 붙여진 홍콩 시위 지지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전남대 중국인 유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이와 함께 중국인유학생회측에는 대자보와 플래카드 훼손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영 기자 young@

전남대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 대학 선정

전남대가 이공계 학생을 지역산업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대학교가 최근 ‘이공계 인재양성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다학제적 연구팀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지원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모두 1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석·박사과정의 대

학원생을 팀장으로 하고 이공계 학부생 위주의 5명 내외로 구성된 연구팀이 지역기업에서제안한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에 나서고, 지도교수와 산업체 전문가가 공동지도 방식으로 연구팀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총장 직속의 ‘전남대 산학융합 실천 문제연구단’을 구성하고 30여개 연구팀을 선발해 이들이 지역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서 구조한 수달 한쌍, 대구 금호강에 보금자리 틀었다

국립생태원 안심습지에 방사

이들 수달 2마리는 지난해 8월 무안과 여수에서 각각 구조돼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인공 포육돼 왔다. 국립생태원은 방사된 수달의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생태특성과 환경특성 등 수달 서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죽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동물 목록인 적색목록에 준위협종(NT)로 분류돼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수달서식지 보전 연구를 본격화하고, 국내 멸종위기종의 보전·복원 사업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